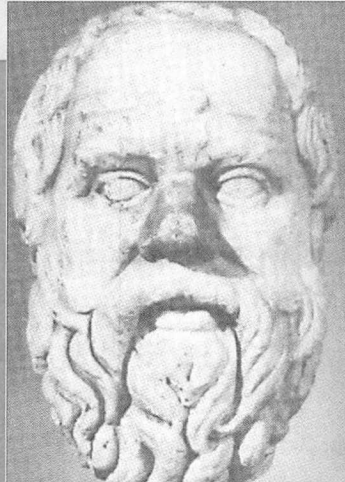


여론의 재판을 받는 소크라테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2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는 것보다
논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시장으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말을 시켰다.
그에게 붙잡혀 지식의 침략전을 치루는
가운데 자기 논리가 허공에 깨지는 일을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 그의 고상함과
익살을 역겨워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 섰다. 여론은 그가 전통적인
믿음을 해치고, 아테네의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여론은 그가 전통적인 믿음을 해치고 아테네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했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 금기사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몸짓이나 말, 또는 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제재를 가한다. 금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금서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초의 서양인이라 할 그리스인의 문화와 금기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문자해독자의 존재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 말 사이에 그리스에서 책은 귀했지만, 문자해독자는 폭넓게 존재했다. 이 당시, 문자해독능력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것이건 비문(碑文)을 읽는 능력이었다. 도시사회의 하층민도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문화적 변화는 민주주의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원전 508~507년 사이에 중요한 정치개혁을 시작했다.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한 이 참주는 오백인회를 창설하고, 민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제도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더욱 완전하게 발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원전 510년 '도편추방제도'를 제정했다고 한다. 아테네 시민은 국가에 대해 위협스러운 인물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썼다. 6천표 이상 얻은 시민은 10일 이내에 아테네를 떠나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다. 이는 여론 재판이었다. 이 제도는 기원전 487년에 히파르코스에게 처음 적용됐다. 여론은 쫓아낸 인물을 다시 불러오기도 했다. 483년에 추방된 아리스티데스 장군은 3년 뒤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자 아테네로 돌아와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기원전 417년 선동정치가 히페르볼루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됐다. 이처럼 '도편추방제도'가 적용됐던 1세기 동안 정부가 발행하는 공문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쓴 책도 늘고 값도 싸졌다. 플라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인들이 문자를 해독

할 수 있으며, 아낙사고라스의 책도 시장에서 "기껏 비싸봐야 1드라크마만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는 외국인이 몰려들었다. 페르시아 전쟁을 겪은 뒤, 그곳이 문화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다. 다른 도시국가에서 아테네로 들어와 활동하던 사람 가운데 최초의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타고라스를 만날 수 있다. 페리클레스의 친구가 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불경죄의 혐의를 받고 추방돼 시칠리아로 가는 도중 바다에 빠져 죽었다. 또한 아테네에 들어가 30년 동안이나 후진을 길러준 아낙사고라스도 있었다. 그는 "태양이 뜨거운 돌덩어리이며, 달은 흙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해 감옥에 갇혔다. 이들은 어찌서 위험한 사상을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을까? 그리스인의 전통적 믿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믿음이나 법률은 강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사상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논쟁으로 전통적 믿음 뒤흔들어

여론은 사실상 그리스 인식론에서 저급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의견, 즉 사견(私見, doxa)은 안정된 지식 체계(épistémè)보다 부정확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견이 지지자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 제 나름대로 안정된 학문의 지식체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거나, 만들어냈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고전철학의 기초를 세운 소크라테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크라테스가 여론의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누구와 본의 아니게 논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헛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을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데도, 그의 말을 들으면 차츰 뒤로 밀린다. 우리는 화가 나고 성급해져서 더 많은 실수를 한다. 그러나 그는 침착한 태도로 야금야금 우리의 말을 해체하고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는 별로 호감을 살 만한 얼굴도 아니어서 더욱 알찼다. 상

대방은 소크라테스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는 것보다 논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는 시장으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말을 시켰다. 그가 덕스럽고 고매한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해도, 또한 익살을 안다 해도, 그에게 붙잡혀 지식의 침략전을 치루는 가운데 자기 논리가 허공에 깨지는 일을 한두번 경험한 사람은 그의 고상함과 익살을 여겨워할 것이다. 아내가 집을 나서서 소크라테스에게 계속 험담을 하다가 성이 차지 않자 물을 퍼부었다. 소크라테스는 천둥 뒤에 소나기가 온다고 말하면서 태연히 시장으로 향했다. 그 아내는 오죽 남편을 미워했을까? 그리고 늘 그에게 당하기만 하는 시민들은 그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아무튼 사람에게겐 좋은 일 만큼 나쁜 일도 일어난다. 소크라테스에게도 그렇고, 그의 희생자들에게도 그렇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치른 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 섰다.

여론은 그가 전통적인 믿음을 해치고, 아테네의 젊은이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여느 남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즐겼다. 그것이 문제였을까? 솔론·페이시스트라토스·소포클레스·피디아스·플라톤·알렉산더 대왕을 포함한 정치가·조각가·철학자·작가가 모두 동성애를 즐겼는데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명하는 가운데,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죄를 덮어 쓴다면, ... 많은 사람들의 중상과 질투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유죄로 만든 것이고, 앞으로도 유죄로 만들리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것이 나한테서 끝나는 일은 아마 결코 없을 것이요.”

육신의 죽음으로 피한 영혼의 삶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하고, 젊은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여론은 자기를 사형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여론에게 아첨하면 살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하고, 젊은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여론이 자기를 사형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여론에게 아첨하면 살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기'를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였다.

는 점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기'를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이나 전쟁의 경우,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그런 궁리를 해서 안되지 때문이요. 그것은 싸움터에서라도 죽음을 면하려 한다면 무기를 버리고 추격해오는 사람에게 동정을 빌면 된다는 것이 흔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는 자기의 '무기'인 말, 말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곧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육신의 죽음을 택하면서 영혼의 삶을 피했다. 그가 비록 글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는 한결같은 말만 나왔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던 타락한 소피스트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파에드로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파에드로스여, 글이란 불행하게도 그림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 화가의 창작품에는 그의 생활태도가 들어 있지만, 그대가 그림을 붙잡고 질문을 던져도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연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네. 어떤 연설이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에 대해 질문을 해보게. 연설가는 언제나 일정한 대답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연설을 일단 글로 써 놓으면, 그것은 사망으로 굴러다니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말이야. 누구에게 대답을 해줘야 하고, 누구에게 대답을 해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채 말이야.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거나 남용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를 갖지 못하지. 또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킬 수도 없는 거야.”

연설을 들은 청중은 즉석에서 연설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말이 글 속에 고정되고, 이리저리 '굴러' 다니다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원래 뜻과 다른 뜻이 나오기도 한다. 원래 뜻이 좋은 뜻일 때, 다른 뜻으로 읽은 사람은 그것을 나쁜 책으로 규정할 것임은 뻔한 이치다. 그런데 글이 “굴러다닌다”는 뜻은 무엇일까? ●